

결혼이주가 이주자 출신 마을에 미친 영향과 젠더 관계의 변화: 베트남 메콩델타 농촌의 사례*

최 호 림**

I.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여성의 해외 결혼이주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5~2012년 기간 베트남 사람의 결혼이주의 대부분은 베트남 여성과 대만 혹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한 이주이다(Nguyen Hong Xoan 2013). 해외 결혼이주 베트남 여성의 가장 많은 송출 지방 중 하나인 켄터(Cần Thơ)시의 경우 1995~2002년 사이 등록된 베트남여성의 국제결혼 중 90%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남성과의 결혼이었다. 1990년대 이후 대만과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외국 여성 중에 베트남 여성은 중국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Tran 2008). 1995~2007년 사이에 대만 남성과 혼인하여 대만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은 97,066명으로 집계되었고, 2011년까지 대만행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1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Nguyen Hong Xoan 2012). 2012년 11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혼인귀화자 포함) 총 197,000명 중 베트남 출신 여성은 약 47,000

* 이 논문은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사)글로벌발전연구원ReDI, hrchoivn@hanmail.net

명으로 전체의 24%에 해당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2월호] 참조)

베트남 여성의 해외 결혼이주의 증가 현상의 거시적인 배경에는 베트남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20년 간 글로벌리제이션의 영향으로 초국가적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어 온 것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아시아의 여타 주요 결혼이주 송출국과 유사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한편으로 동아시아에서 결혼이주의 주요 수용국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 한국 등에서 여성의 독신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 남성이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결혼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주 수요와 맞물려 있다.

이 논문은 결혼이주가 출신 지역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송출 마을에서 결혼 적령기(베트남의 경우 만 18세~25세 내외) 자녀가 있는 가족과 이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이주가 자녀간의 관계를 비롯한 젠더관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가 주요 질문이다. 아시아 각국에서 이주가 젠더 관계의 재구성 과정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의 문제는 사회 변동의 요인으로서 이주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특히 아시아의 국제이주에서 흔히 ‘이주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tion)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으로서, 이주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는 맥락에서 결혼, 이주, 계층이동의 연관관계(nexus)를 고찰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Hugo 2005). 이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인식에 대한 해석을 토대로 결혼이라는 경로의 여성 이주가 이주자의 고향 마을에서 특히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과 한국행 결혼이주 송출이 집중된 곳으로 잘 알려진 남부 베트남 메콩델타의 켄터(Cần Thơ)시 툏쯏(Thốt Nốt)

구 락(Tân Lộc) 마을에서 수행한 현지연구에서 관찰과 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가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¹⁾ 연구자는 2008~2013년 사이에 중 모두 다섯 차례의 이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이중에 본문의 기술에 활용된 자료는 2012년 7월 30일~8월 3일, 9월 19~24일 기간에 진행한 현지조사 자료가 중심이 되었다.²⁾

이 기간에 연구자는 대만이나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딸이 있는 20개 가구(이주자 가구)와 비이주자 가구를 포함하여 약 30개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였다.³⁾ 이들 가족 중에 약 40명과 면접을 실시하였고, 이들 중 약 절반인 18명은 두 차례 이상 만났다. 특히 주요 정보제공자(key informants)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는 대만과 한국으로 이주하였다가 ‘가족 해체’를 경험하고 귀국한 여성 8명과 자녀를 데리고 일시 귀국한 여성 4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베트남여성연맹 켄터 지부의 간부, 톡눛현 인민위원회와 부녀회 간부, 락마을

-
- 1) 락 마을은 켄터시와 허우장(Hầu Giang)성을 가로지르는 메콩강 지류의 섬마을로, 2000년대 이후 “대만 섬”(Taiwan Island)라는 별명으로 알려질 정도로 대만행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은 마을이다. 2000년대 후반 한국행 결혼이주가 증가하면서 “한국 섬(Korean Island)”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말하는 일부 한국인도 있었으나 이러한 별명에 대해서 실제 이 마을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마을의 결혼이주 현상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http://goldsea.com/808/11marry.html>; <http://articles.latimes.com/2008/aug/24/news/adfg-brides24> 등)
 - 2) 연구자가 처음 락 마을을 방문한 것은 2008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이었다. 두 번째 방문은 2010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였다. 첫 번째 방문의 목적은 베트남의 국제이주현상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남부에 노동이주보다 결혼이주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방문은 한국으로 결혼이주 후 이혼이나 사별을 통해 ‘가족 해체’를 경험한 귀국 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를 위해서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결혼이주가 마을에 미친 영향과 이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면접조사는 2012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와 같은 해 9월 19일부터 24일까지의 방문 시기에 집중하였다. 이후 2013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에는 보충조사를 하였다.
 - 3) 메콩델타 농촌에는 실제 혼인 후 부모의 집에서 먼 곳으로 분가하지 않고 연이는 주택에 거주하는 딸과 사위 가족을 둔 가구가 혼하여 결혼한 부부와 그들의 자식을 기준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로 판단하기가 모호한 가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이웃한 가구에 거주하는 기혼 자녀의 경우 부모의 가구 수에 포함하여 하나의 가구로 계산하였다.

촌장 등 행정지도자들로부터도 국제결혼을 한 여성이 늘어난 이후의 마을의 변화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과의 심층면접과 마을과 각 가구의 모습, 가족과 이웃 생활에 관한 관찰을 통해 연구자는 결혼이주가 가족과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탐구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관계의 변화에 관하여 이주자를 포함한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II. 기존연구 검토와 현지조사

1. 이주의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에서 이주와 사회변화의 관계, 즉 이주를 근본적인 사회 변환(social transformation)의 요인으로 간주하는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국제이주는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에서 사회관계와 규범을 재조합(reconfiguration)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유발한다(Charley 2005: 86; Rahman 2009: 161).

이주와 발전(development) 간의 상관관계는 이주 연구에서 꽤 오래된 고전적인 이슈로 자리 잡아 왔다(Lucas 2005). 대개의 연구가 송금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이주의 경제적 영향에 주목해온 반면에 파이프(Piper 2009)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관점 즉, 이주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녀는 ‘발전에 대한 이주의 영향’(the impact of migration on development)을 탐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전에 대한 이주자의 기여(migrants' contribution to development)’를 탐구하는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Piper 2009: 94). 수용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송출국가 및 이주자 출신 지방의 사회적 틀(social fabric)에 대한 이주의 구체적인 영향과 효과에 관한 연구 또한 이주와 포괄적 사회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이주가 이주자의 가구나 공동체에 의해 어떻게 경험되고 인식되는가에 초점을 두는 접근을 활용하고자 한다.⁴⁾

또한 국제 이주를 특히 젠더관계와 관련시켜 분석하는 이론적인 연구가 이미 일부 서구 학자들에 의해 발표되었다. 즉 젠더(gender) 이슈를 이주의 과정과 결과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 간주하는 연구들이다. 이주가 젠더화된 정치경제(gendered political economy)체제와 전지구적 가부장 체제(global patriarchal system) 내에서 위치하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주는 본성적으로 젠더화되었다는 입장(gendered nature)이 있다(Piper and Roces 2003; Bélanger and Tran 2011: 61에서 재인용). 대다수 사회에서 젠더는 일상적인 다양한 실천과 관행(practices), 정체성과 제도들에 침투하기 때문에 이주의 당사자들이 속한 사회에서 젠더(gender) 이슈는 결국 이주의 과정과 결과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된다(Hondagneu-Sotelo 2000: 117)

해외 이주자의 송금이 사회관계와 젠더 역할의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남성 이주노동자의 송금이 고향에 남아있는 여성 가족의 지위에 어떤 변화를 유발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앞에서 언급한 방글라데시의 사례연구에서 남성이 이주해 나가서 송금하는 것이 집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권력을 확대하고 여성을 가내노동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였다(Rahman 2009: 169). 이전에 주로 남편들이 수행하였던

4) 이주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의 송출 마을들에서 이주노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채택된 바(Rahman 2009)와 같이 중단 연구(longitudinal study)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장기적 추적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생산적인 활동과 역할들을 아내 혹은 여성 가족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었다. 남성의 부재 상황에서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규범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고 여성은 더 이상 남성들에 비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여러 가정사의 관리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성인 남성의 부재가 가내의 관리에서 여성의 자유와 자율성의 증대를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Rahman 2009).

가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가족의 경제적 자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송금에 대한 권한(power)이 증가하였다고 평가해왔다. 방글라데시에 관한 연구에서 하디(Hadi 2001)는 외국으로부터 송금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이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가내 의사결정권에 대한 여성의 개입이 늘어나고 여성의 권한이 증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송금을 통해 경제적 능력이 상승된 여성들에게 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권한이 부여되고 지출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됨으로써 여성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또한 송금수입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대신할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어 여성의 육체노동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연구도 있다(가령, De Haas 2007).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남편이 해외이주를 할 경우 부인의 자신감이 강화되고 인격적인 성장(personal growth)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Lucas 2005).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대개 남성 노동자의 해외이주가 송출 지방이나 가족에 미친 영향에 관한 것이다. 반면에, 필리핀 여성 이주자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마을의 집에 남아있는 남성이 여성 이주자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Asis 2001; 2003: 107-108). 대개 이주여성의 역할 공백이 가족 내 다른 여성들에게 부담이 된다.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주가 가족들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해 고찰한 연구가 있지만(Hugo and Nguyen 2007), 이 연구는 가족 관계의 변화 혹은 젠더 역할의 변화에 관하여 다루지는 않았다.

또한 해외 이주는 송출지역에서 결혼 관습과 배우자 선택의 기회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발전국 건설시장에서 일했던 남아시아 출신의 미혼 남성은 높은 소득으로 인한 공동체 내의 지위 상승으로 인해 촌락에 머물고 있는 비이주자 남성들에 비해 ‘값나가는 신랑감’(prized bride-grooms)으로 간주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Hadi 2001). 동시에 미혼 남성 이주자들이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변화하게 되어, 지참금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는 대신에 오히려 배우자 가족의 신분과 교육수준 및 외모가 더욱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인식되었다. 하디(Hadi 2001: 55-56)는 이주자 가족의 경우 오히려 지참금을 거절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관찰하였다. 방글라데시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성 이주자가 관습과 달리 자신의 배우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점도 고찰되었다(Rahman 2009: 165). 즉, 해외이주한 아들은 부모에 대한 재정적 의존도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보다 재정적인 권한이 확대됨으로써 부모가 정해주는 중매결혼을 거부하고 배우자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아시아 이주 송출지방에서의 발전, 공동체의 변화 및 젠더 관계와 이주의 상관성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대개 노동이주의 사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았다. 여성이 지배적인 이주흐름이며 계약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재결합이 주요한 과정이자 양상이 되는 결혼이주 현상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수용국에서 이들의 정착과정과 갈등에 관한 연구들이다(Lee 2008; Wang 2007; Wang and Bélanger 2008). 이러한 연구들은 국제결혼 이주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과 성공적인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기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분석이나 동아시아 국가들로 이주한 결혼이주자

들이 겪는 어려움과 가족 간의 갈등에 관해 주로 탐구했다.

한국에 이주한 중국 및 동남아 출신 결혼이주 여성에 관한 연구가 지난 10년간 활발하게 발표되었으나, 이 또한 수용국인 한국의 사회에서의 적응과 갈등에 관한 문제와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김기홍 외 2011; 김민정 외 2006; 김현미 외 2007; 설동훈 외 2006; 윤형숙 2003; 한건수 2006). 이러한 연구는 특히 수용국의 이주민 관련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송출국과 수용국 사회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세밀한 갈등의 요소들에 천착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개의 연구가 출신국의 시각에서 출신 마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와 사회변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결혼이주자의 수용국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아시아의 결혼이주의 트렌드에 관한 연구를 리뷰한 한 논문에서도 이주여성의 출신 지역 즉, 송출 지방에 미친 이주의 사회적 결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Jones and Shen 2007).

일부 연구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 후 귀국한 이주여성의 경험을 통해 중매업에 의한 국제결혼의 문제점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참조가 되었다(김이선 외 2010; Nguyen Hong Xoan 2013). 또한 베트남이 결혼이주여성의 주요 송출국가로 부상한 이후 최근에 베트남에서 귀환 이주여성의 사례에 대한 현지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에 관한 송출국의 시선과 이주여성의 경험을 다룬 연구가 일부 발표되었다(최호림 2013; Bélanger, Khuat and Lee 2011). 이러한 연구는 이주여성의 출신 마을의 사회적 관계나 국제결혼에 대한 시선이 결혼이주 이후에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한편, 베트남의 빈곤층 결혼이주 여성과 대만과 한국의 남편, 이들의 결혼을 실제적으로 매개하는 상업적인 결혼중매업체에 대한 배

트남의 관변 미디어의 시선을 다룬 연구는 베트남 사회의 지배적인 인식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Bélanger, Khuat and Tran 2011). 베트남에는 노동이주가 발전전략으로 장려되고 있는 반면에 (崔昊林 2010), 결혼이주는 ‘인신매매’, ‘여성의 상품화’, ‘부도덕한 결혼중매업’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대만과 한국행 결혼이주가 절정에 달했던 2000년대 중반 다양한 대중언론을 통해 표현되었는데, 심지어 국제결혼 현상을 ‘나라의 수치’로 간주하거나 이주여성을 ‘국가, 공동체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무책임한 딸’이라는 낙인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 반해 이주여성이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Constable 2005; Nakamatsu 2005). 결혼이주자들이 겪는 억압과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족과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자신들의 공간을 짜내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 이주여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Wang 2007). 그러나 이주여성의 주체적인 능동성에 관한 이 사례연구는 대만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및 필리핀 여성의 일부 사례에 국한된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결혼이주자’ 혹은 ‘외국인 신부’라는 딱지가 어떻게 인격으로 가진 여성 노동력이자 수용국의 엄연한 시민이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눈감게 하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연구도 있다(Piper and Roces 2003). 개발도상국 출신 여성이 아시아의 부국 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제결혼 일종의 ‘양혼’(仰婚, marry up)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여성이 국제결혼 이주의 주요 수혜자라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제시되었다. 가령, 중국 여성의 국제결혼이주를 다룬 한 연구에서 상대적 부국의 시민이지만 빈곤층에 속하는 남편과 중국인 아내 사이에서 실제 어떻게 ‘신분의 교환’(status exchange)이 초래되는지는 남편과 아내의 구체적인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나 학력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Farrer 2008), 즉 이러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는 양혼이 되고 그 반대로 누구에게 신분하향의 혼인(marry down)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점에서 '빈국 여성의 결혼이주는 곧 양혼'이라는 편견은 재고되어야 한다.⁵⁾

2. 현지조사

컨터(Cần Thơ)는 남부 베트남 메콩델타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베트남의 5대 도시 중 하나이다. 컨터시에 속하는 9개 현(district)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에 속하는 툏뚓(Thốt Nốt)의 여러 마을들은 1990년대 후반 대만행 결혼이주가 유행처럼 퍼져나간 이후 베트남에서도 가장 결혼이주자가 집중된 곳으로 유명하다. 1999~2003년 사이에 툏뚓구의 세 마을에서 파악된 결혼 건수 중 약 45퍼센트가 외국인 신랑과의 결혼이었고, 그 대부분이 대만 남성과의 국제결혼이었다. 2003년 이후 한국행 결혼이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1999~2006년 기간 중에 앞의 같은 세 마을에서 765명의 여성이 외국으로 결혼이주를 하였다(Bélanger and Tran 2011: 63-64). 2008년 연구자가 이 마을을 처음 찾았을 당시 툏뚓현의 18~25세 여성이 약 3,100~3,200명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툏뚓현 인민위원회 간부 설명, 2008년 6월 18일).

툏뚓 마을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결혼이주 여성은 결혼 당시 평균 21세였고, 60%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교육수준

5) 영국여성과 결혼하여 영국으로 이주한 파키스탄 남성이 국제결혼으로 인해 출신 지역공동체와 가족관계에서 권력을 상실하는 경우도 고찰된 바가 있다(Charsley 2005). 이와 같이 이주가 젠더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낮았다. 고등학교를 다닌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은 호치민 국립대학교 홍 쏘안 교수의 연구에서 알려진 메콩출신 결혼이주여성의 평균연령 및 학력수준과 유사하다(Nguyen Hong Xoan 2013). 결혼의 경로를 알려준 22명 중에 16명이 브로커를 통한 결혼이었다. 독특한 점은 베트남에서 지방의 각 성별 인구비례를 따져 쿼터제를 통해 해외노동이주자를 모집하는 제도에도 불구하고(崔昊林 2010 참조), 톡뚝현에서 이주노동을 나간 남성을 찾기가 어려웠다. 켄터 시내 중심에서 외떨어진 메콩강 지류의 연이는 섬마을 중 하나라는 환경적인 요인도 다른 형태의 국제이주 흐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보다도 국제 이주노동의 중개활동을 하는 기관이 근처에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켄터 시내를 비롯하여 인근의 공업도시 지역이나 호찌민시로 이주노동을 하거나 인근 농공업단지에 계절적인 임노동을 위한 일시적 이주를 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절적 임노동을 위한 일시적 국내이주를 순환이주(circular migratio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방에서 주로 남성노동자에 의한 이러한 일시적 이주현상보다 뚜렷한 이주현상은 바로 중매업을 통한 여성의 결혼이주이다.

방문 면접에 응한 20개 이주 가구는 딸이 대만 또는 한국 남성과 혼인하여 이들 나라로 이주한 경우였다. 톡뚝현 인민위원회와 켄터시 여성연맹이 제공한 목록에서 임의적으로 한두 명의 이주여성이 포함된 이주가구와 이주자 없는 가구 즉, 비이주 가구를 선택하여 방문하였다. 매번의 방문마다 처음 소개를 받은 두세 개 가구에서 조사를 시작하였다가, 면접 중에 언급된 이웃의 이주가구나 비이주 가구를 연속으로 소개받아 자연스럽게 약속을 정해 방문하는 방식이 가능했다. 모든 이주 가구에서 이주자의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이주여성의 남매 중 한사람과 면담을 하였다. 이주가구의 경우 가구

별 인구구성과 사회경제적 특징, 이주자와 국제결혼 의사결정 과정 및 진행과정에 관한 이야기 등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결혼이주의 가족에 대한 영향, 특히, 송금에 관한 사항(송금액, 송금 빈도, 송금의 사용처, 송금액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결혼이주 전후의 생활 상태 및 가족 내 관계와 역할의 변화에 관한 인식 등을 질문하였다. 한편, 비이주 가구의 경우 대개 부모 중 한사람이나 혼인 적령기에 해당하는 자녀와 면담하였다. 비이주 가구의 딸들은 대부분이 한국이나 대만으로 결혼이주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또한 이웃의 이주가구에 대한 이들의 평가나 인식에 관해 물었고, 이웃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메콩 농촌의 가구들은 좁은 수로를 따라 개방형 주택들이 연이어 있는 형세여서, 어느 한 가구에서 면접을 시작하면 금방 이웃에 사는 가까운 친척이나 형제자매들이 모여든다. 베트남 남성과 혼인한 딸은 상당수가 같은 마을에 거주하거나 남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자주 드나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포함하여 자연스럽게 그룹 인터뷰가 진행되기도 했다. 실제 이주가구의 면담에서 귀국한 여성이 국제결혼으로 낳은 어린 자녀를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타지로 나가 다시 일을 하는 경우(5명)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부모 중 최소 한명과 자녀가 같이 참여하는 그룹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일부 이주자 어머니, 자매, 그리고 일부 마을지도자나 여성연맹 간부들과 개별면담도 진행되었다. 이주 가구에서 20-30대 청년 남성 4명, 비이주 가구에서 30대 청년남성 3명도 만나 면접하였다. 마을 생활과 가족 관계에 대한 관찰도 병행하였고, 견터시 여성연맹, 호치민시와 견터시의 이주여성 지원 단체(KOCUN, 한국문화원 등)의 전문가들과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에 관한 비공식 토론회도 했다. 특히 현지 전문가들과 비공식 토론회는 이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문을 듣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의 설명에는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베트남 사회의 비판

적 시선이나 그러한 시선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는 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을 수 없는 이야기로서 연구자가 결혼이주 송출마을에 관점에 일방적으로 몰입하는 위험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균형감을 갖도록 해주었다.

Ⅲ. 결혼이주가 미친 영향과 젠더 관계의 변화

1. 국제결혼 이주가 마을 여성의 지위에 미친 영향

대만이나 한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딸의 가내 영향력과 권한이 뚜렷하게 확대되었다. 그것은 주로 송금의 경제적 역할 때문이다. 네 가구를 제외한 모든 이주 가구가 조사 전 일 년 이내에 결혼 이주한 딸로부터 최소 한 번 이상의 송금을 받았고, 그 대부분의 가구에서 송금이 소득의 중요한 수입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⁶⁾ 이렇게 이주한 딸의 금전적인 기여가 이주 가구에서 남녀 관계를 변화시켰고, 외국에 있는 이주자가 가내 의사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 2000년 당시 38세였던 대만남성과 혼인하여 대만으로 이주한 큰딸(결혼 당시 20세)이 매년 서너 차례씩 평균 300~500달러를 송금한다는 한 어머니는 말했다. 그녀의 집은 편록마을의 여타 이주가구보다도 뚜렷하게 현대식 3층 주택으로 개축되어 있었다.

“내 딸이 돈을 벌지 못했을 때 나는 딸에게 아무것도 의존하지

6) 베트남인의 국제이주에 관한 한 연구에서 약 90%의 이주가가 송금을 받고 있다고 파악되었다(Tran 2008). 2004년 약 천개의 샘플에 대한 서베이를 한 연구에서도 88%의 가구가 송금을 받고 있다고 나타났다(Hugo and Nguyen 2007: 382)..

않았다. 모든 일을 내가 결정했다. 지금 그녀가 실제 가족 전체를 지원하기 때문에 나는 가족 문제를 대만에 있는 딸과 상의하고 있다. (TV와 장식장을 가리키며) 값비싼 가구를 살 때도 딸이 보내준 돈을 썼다. 2년 전 집을 새로 짓고 작은 가게를 여는 것도 딸이 시기를 결정해 주었다. 작년 아들 결혼식 비용도 딸이 송금한 돈을 사용했다. 빚도 갚았다. 앞으로도 그 애가 내게 돈을 보낼 것이고 나는 집안의 많은 일을 딸애와 의논할 것이다.” (Xuân, 50세, 이주자 어머니)

이주한 딸은 토지 구입, 고가 가구 구입, 주택 건축 등과 같은 가족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관리나 의료, 종교의례활동, 가족구성원의 혼인과 같은 가족생활의 사회적 면들에 대해서도 권한을 갖게 된다. 송금의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이주한 딸의 권한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한 이주여성의 여동생은 언니의 희생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들이 가족사에 대해 언니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학비를 부담해주면서 많은 결정을 언니에게 의존한다고 하였다.

“이전에 우리 가족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곤란에 있었는데, 언니가 희생을 하여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언니가 나에게 학교에서 얽려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미래에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해주었다.”(Lan Anh, 18세)

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딸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가족을 만났다. 결혼식 비용을 지불해주었기 때문이다. 띠엔(Tiên, 59세)씨는 딸의 도움이 없었으면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결혼을 한 딸들은 여러 면에서 가족 내 권력을 확대하였다. “딸이 많은 금액을 송금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그녀에게 허락받아야 하고, 가족

모두가 그녀의 의견을 따라야한다.” “돈이 있다는 것이 권위와 특권을 지닌다는 뜻이다.” “무엇을 사거나 하고자 하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많았다.

한편, 지난 수년 간 송금을 받지 못한 일부 이주가구의 경우, 이 때문에 이주한 딸이 가족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다고 했다. 한국의 어느 농촌으로 결혼 이주한 여성의 부모는 수년이 지났으나 딸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해 계속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화로 돈을 부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이 울기만 했다고 했다. 2002년 대만으로 이주한 딸이 일 년 만에 혼자 친정을 방문하면서 아무런 돈과 선물을 준비하지 않아 실망하였다는 한 부모는 딸이 다시 대만으로 돌아간 이후 한번을 제외하고 8년 동안 송금을 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전화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결혼 이주한 딸이 가족의 생계를 많은 부분 담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가족 내 세대 간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주여성은 고향의 가족이 송금에 대하여 감사하는 표현이 부족하거나 송금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2006년 한국의 소도시로 이주한 한 여성(Thúy, 26세)은 6년 만에 두 자녀를 데리고 귀국하여 부모와 가족들은 만났는데, 자신이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며 아끼고 어렵게 모아 송금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고향의 가족이 잘 모르고 있어서 많이 울었다고 했다. 사실 집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이주여성이 돈을 벌어 송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없다. 대만으로 이주한 한 여성의 가족은 송금으로 빚을 갚게 되자 아버지가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나가지 않고 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한국에 사는 딸로부터 1년에 겨우 한두 차례 송금을 받은 어느 어머니(Lan 52세)는 남편

과 다른 자식들이 돈을 저축하거나 유용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낭비를 하여 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딸을 안타깝게 한다고 했다.

송금은 빚을 갚거나 가내 필요한 가구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 형제자매의 교육비로 지출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일상적인 지출에 사용된다. 송금액이 고향에 남아 있는 가족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투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최호림 2010). 한 연구에서 베트남에서 이주한 사람이 있는 가구가 이주자가 없는 가구보다 소비수준이 높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Tran 2008). 이러한 상황은 이주한 여성이 보다 장기간 동안 송금을 해야 한다는 압력이 되기도 한다.⁷⁾

이주 이후 이주자 지위의 변화는 송금 여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주 여성은 마을의 다른 젊은 미혼 여성들에게 모델이 된다. 비이주 가구의 딸들에게 이웃에 살았던 이주여성은 이제 보다 부유한 국가에 사는 배우자로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현대화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 마을에서 한국이나 대만은 부유한 국가라는 점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다. 마치 대만과 한국은 빈부격차가 없이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생각될 정도로 두 나라에 대한 설명에서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었다. 이렇게 결혼이주 여성이 “잘 사는 한국에서 사는 사람” 혹은 “부자 나라 대만에서 결혼한 사람”과 같이 발전국가의 시민이나 거주자라는 사실이 곧바로 지위와 연관시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고향마을에서 이주여성은 높은 지위를 획득한 여성으로 평가되어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주자 가구 내의 이주하지 않은 다른 여성들의 지위에

7) 싱가포르에 이주한 방글라데시 출신 단기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 연구에서 송금을 받는 가구의 구성원들은 이주자가 외국에서 보다 쉽게 돈을 벌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많다고 하였다(Rahman 2009: 168). 이와 유사한 점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도 영향이 있는가? 실제 이주한 여성의 지위 상승에 비하면 이주자가 있는 가구에 남아 있는 이주하지 않은 여성의 지위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주여성이 있는 가구의 경우 송금에 대한 통제권은 주로 이주여성의 어머니가 행사하며, 다른 자매가 행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송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도 어머니가 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아버지와 의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 가구의 경우 오토바이 구입을 위해 아버지와 상의를 하였으나 결정은 어머니가 했다고 했다. 어머니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 집에 남아있는 다른 자녀와 상의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더구나 이주한 자매가 있는 경우 남은 언니나 동생의 가내 노동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전에 이주한 언니나 동생이 담당했던 일들은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하루의 절반 정도는 어머니를 도와 가사일과 밭일을 했다. 언니는 매우 부지런하고 충실했다. 언니가 결혼하여 한국으로 간 이후 집안일의 거의 모든 것이 새로 짜여졌다. 지금은 집에 여자는 어머니와 나뿐이다. 요리, 청소 등 가사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작은 가게를 돕는 것도 내가 해야 한다.”(Ly, 20세)

송금에 대한 통제권으로 인해 가내 세대 간 역할관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성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장자 순의 의사결정권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였다. 특히 이주여성의 여동생의 경우 언니의 이주와 송금으로 인해 새로 얻게 되는 권리상의 혜택은 거의 없었다. 대신에 오히려 기존의 언니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 만일 언니가 국제결혼을 하지 않고 가까운 마을에서 배우자를 구했다면, 결혼을 한 언니뿐만 아니라 형부를 포함하여 새로 만들어진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노동력의 지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송금이 많지 않거나 지속적이지 않거나 혹은 없는 경우에는 집에 남아 있는 자매가 해야 할 일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언니가 한국인 형부와 결혼하여 돈을 부쳐주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나는 오히려 바쁘고 힘들어졌다. 가끔은 형부와 언니가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해주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도 있다. 근래에는 언니가 거의 돈을 부쳐주지 않는다. 나는 언니 대신에 하는 일은 많아졌는데 용돈을 더 얻지는 못한다.”(My, 21세)

이와 같이 이주가 반드시 젠더 평등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증거도 얼마든지 있다. 비록 여성의 가족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와 권한이 증대하게 되고 어느 정도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지만 송금 사용의 통제력, 가족사의 주도, 권력의 증대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남성 이주자가 여전히 송금의 사용을 통제하고 가족 내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 본 방글라데시의 사례연구에서도 남편이 귀국하자마자 젠더 관계는 이주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관찰되었다(Hadi 2001: 58). 사실 남편이나 아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내 혹은 어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지속해야하기에 오히려 여성은 권한의 증대 이상으로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일시적인 가장으로서 의사결정자의 책임을 져야 하면서 기본적인 가사노동은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여성의 가내 재생산 역할이 감소하거나 완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성의 육체적 감정적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마을의 젊은 미혼 여성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가? 우선, 이주여성의 자매들은 거의 모두가 국제결혼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했다. 대만남성과 결혼한 한 여성의 여동생(Loan, 19세)은 대만에

서 언니가 자기에게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녀는 언니가 소개하는 대만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대만에 서 언니 부부와 가까이 살면서 행복한 결혼생활도 하고 가족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고 안목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만일 국제결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자신은 언니처럼 외국에 나가 살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과 혼인을 희망하는 어린 여성들 대부분은 부모를 보다 확실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국제결혼에 성공한 사례들이 특히 마을에 남아있는 자매들이나 이웃 젊은 여성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열망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니의 국제결혼을 이상화하는 여동생이 많았다. 외국남성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것이 ‘현대적’(hiện đại)인 것이고 ‘국제적’(quốc tế)인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 여성(Thảo, 20세)은 언니가 한국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후 더 예뻐지고 살이 쪼서 건강해 보이고 옷도 이전보다 훨씬 잘 입게 되었다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역시 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언니가 외국에서 여러 멋있는 곳으로 여행을 가는 모습이 부럽다고 하며 자신도 미래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다. 또한 한 여동생은 외국인과 결혼한 언니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어서 자신도 외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언니처럼 외국어도 배우고 외국의 새로운 생활양식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Lý, 20세)

국제결혼은 가족 내 다른 여성뿐만 아니라 이웃의 미혼 여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왔다. 마을 내에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구일수록 가족 내 젊은 여성의 국제결혼을 선호하고 국제결혼의 긍정적인 기여에 대해 더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미 국제결혼에 성공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외국인 배우자 선택

에서 기대하는 바가 많다. 송금수입이 있는 가구들은 사회경제적인 지위상승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혼인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한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부유한 가족 출신이어서 친정 가족을 도울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외국인 남편의 가족이 우리보다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Vân, 21세)

이와 같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젊은 미혼 여성이 기대하는 배우자의 기준에는 직장과 재정적인 안정성 및 사회적 지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에도 유사한 조건을 기대하고 있었다.

“내 딸이 베트남 남자와 혼인하기를 원한다면 사위가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유복한 가정 출신이길 원한다. 그러나 대만 사위가 더 좋다.”(Kiêu, 59세)

큰 딸이 이미 대만 남자와 결혼하였고, 결혼적령기인 두 딸을 가진 한 여성은 큰 딸이 국제결혼에 성공한 이후 나머지 두 딸도 국제결혼을 강력하게 희망하게 되었다고 했다. 두 딸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베트남 남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한번은 견터시내에 사는 한 친척이 24살이 된 둘째 딸에게 지방 공안국에서 두 번째 서열에 오른 35세 된 공안을 소개해주었는데도 딸은 혼인을 거절했다.

“우리가 가난했던 때에 만일 이러한 혼처가 들어왔으면 아무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다.”(Tham, 55세)

2. 남성의 지위와 결혼시장의 변화

마을에서 결혼이주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미혼 여성들에게 인생 경로의 선택을 위한 대안을 넓혀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결혼 혹은 국내결혼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이다. 반면에 미혼 남성은 여성 배우자 선택범위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미혼의 아들을 둔 부모는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고자 하는 여성을 며느리로 구하고자 하지만 점점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주가 초래한 경제적 변화와 함께 인구구성의 변화와 연계된 결과라고 추측된다. 단적으로 여성은 결혼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진 반면에 남성은 그 반대가 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이제 여성의 가치가 보다 비싸졌다”고 말한다. 남자들 중에는 “여자는 아무리 무식하거나 가난해도 외국 남자와 쉽게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Tiên, 27세).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경우에도 여성에게 선택권이 확대되었다. 인민위원회의 한 간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툫낫의 많은 마을에서 결혼적령기의 남성이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30대의 한 남성은 국제결혼 때문에 자신은 결혼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 대부분은 이미 외국 남성에게 선택되고, 남은 사람들만 베트남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마저도 기회가 거의 없어졌다.”(Anh, 34세)

“일반적으로 지금은 여자가 실제로 남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베트남 남편을 구해도 부유하고 직업을 가진 남자를 선택할 수 있다. 가난한 베트남 남편보다 대만 남성과 결혼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떤록 마을 촌장 Kiên, 58세)

결혼이주의 증가로 인해 젊은 미혼 여성의 수가 부족해지면서 결혼 거래에서 권력관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미혼여성과 부모들은 베트남 남성과 결혼을 할 경우 신랑측 부모가 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흥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신부감이 줄어들어감에 따라 신부측이 결혼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되자, 신랑 가족이 보다 많은 신부대(bride-price)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기 때문이다.⁸⁾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전에는 신부측이 이러한 주도권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결혼을 위한 신랑측의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신부측 가족이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가령, 이전에는 금 한 량(tale, 약 37.7그램)을 요구했다면 지금은 두 량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신랑 측 가족이 신부대로 어느 것을 주어도 신부측에서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신부측에서 구체적인 품목이나 금액을 정해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했다. 특히 대만이나 한국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미혼여성들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었고 이에 신부대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학력이 낮은 미혼 남성들은 신부를 찾기 위해 먼 지방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많아졌다. 국제결혼이주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여자들이 교육 수준이 낮은 베트남 농촌 남자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빈곤층 가구의 미혼남성은 메콩에서 더욱 오지마을까지 신부를 구하러 가는 경우도 생겼다. 신부 가족의 요구가 너무 큰 부담이 되어 가까운 마을의 여성과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미혼 남성도 있었다. 결혼을 위해 신랑의 가족이 3~4량 이상의 금을

8) 베트남에서 지방에 따라 신부대는 일종의 ‘간접적인 지참금’(indirect dowry)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로 신랑 측 부모가 지불하는 금액을 신부가 받아서 새로운 부부가 새 가구를 시작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Bélanger and Tran 2011: 70). 즉, 신부가 신랑측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지참금으로 사용되지만, 재원이 신랑측이 된다는 점에서 신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준비해야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돈이 없어 결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청년의 푸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남성의 배우자 선택권이 제한된 것은 여성의 결혼이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면서 혼인의 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협상력과 주도권이 증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이주가 늘어나면서 미혼 남성에게 대한 평가나 인식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베트남 남자들은 바람직한 배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남편을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흔하게 들을 수 있었다. 미혼 여성들과 그 부모들은 주변의 베트남 남자들에 대해 ‘놀이만 하는 남자’, ‘술 취한 남자’, ‘무책임한 남자’, ‘폭력적인 남자’ 등으로 묘사되었다(Nguyen Hong Xoan 2012). 비이주 가구의 여성들 대부분도 선택할 수 있다면 베트남 남자보다 외국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베트남 남자들은 너무 잘 놀고 술을 많이 마신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술이 취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기도 한다. 외국 남자와 결혼하면 보다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고 가족도 도울 수 있다.”(Hiên, 20세)

장노년층 여성 중에도 베트남 남자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주 가구의 한 어머니(Tham, 55세)는 “(남자들이) 술 마시고 노는 것만 알지 돈을 벌지를 모른다. 아이와 아내를 때린다. 여자들이 극도로 불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여성의 결혼이주로 인해 국제결혼에 대한 열망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한 기대와 전망도 변화되었다. 또한 기존의 젠더 관계에 도전을 하게 되고 가족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마을 수준에서도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⁹⁾ 많은 미혼 남

9) 메콩델타 농촌마을 여성의 결혼이주가 마을의 남성의 혼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들과 그 부모들은 결혼시장이 점차 힘들어졌다고 했다. 미혼 남성들은 여성의 대량 해외이주로 인해 스트레스와 압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고 결혼 가능성이 제한된다는 점에 대해 걱정하였다.

“나는 정말 슬프다. 젊고 예쁜 마을 여자들은 거의 모두가 이미 외국남자와 결혼하여 나갔다. 우리처럼 가난한 남성들은 결혼하기 어렵게 되었다. 나는 총각으로 늙어 선반에 앉게 될 것이다. 동탑(Dồng Tháp)이나 안강(An Giang)성의 훨씬 가난한 마을에서 신부감을 구해야 할 것이다.”(Thanh, 33세, 미혼남성)

“과거에는 간혹 ‘선반에 남아 있는’ 경우는 대개 여자였는데 지금은 남성들에게 해당된다. 신부를 찾기 위해 고산지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신부감을 구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촌장, Kiên, 58세)

“이 마을 여자들은 누구도 나처럼 가난하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려 하지 않는다. 자기 가족을 돕기 위해 외국 남자와 결혼하고자 한다. 수입이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남성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Tuán, 29세)

해외 결혼이주가 남편의 경제적 능력과 고용상태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 기대되는 신부대가 더욱 비싸지면서 빈곤층 남성들은 더욱 결혼이 힘들어지고 자신을 열등하고 결혼에 적합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남성들이 ‘선반에 놓인 존재’ 즉, 결혼하지 못하고 총각으로 늙어 결국 잡신을 모신 선반에 앉을 존재가 될 것이라는 비유는 충격적이었다. 이러한 남성

마을 주민들의 인식에 관한 한 조사에서, 전체 400여 가구 중에 약 50%가 마을 내에 배우자를 구하기 힘들게 되었거나(36.7%) 마을 외부에서 배우자를 찾아야 한다(13.3%)고 대답했다(Bélangier and Tran 2011: 71-72). Hugo and Nguyen(2007: 384)에서도 유사한 조사 결과를 보였다.

들에게 가능한 대안은 다른 지방에서 ‘보다 값싼’ 신부를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로 여전히 젊은 미혼여성을 구할 수 있고 신부대가 거의 없는 외딴 오지를 찾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다.

결혼 이주한 딸이 있는 가족은 모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즉 딸은 외국남자와 결혼하는 반면에 아들은 신부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켄터 여성연맹의 간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행정지도자들은 지방의 결혼 시장의 변화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특히 성비율의 불균형에 관해 우려하였다. 이주 여성이 많은 마을은 적령기 남녀 비율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수치나 비율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이들의 한결같은 우려에서 그 심각성은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었다. 남자들은 점차 무기력해지고 여자들은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남자는 더욱 신부를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결혼이주 여성이 집중된 마을의 남성들은, 마치 여성의 높은 미혼율로 인해 외국인 신부를 수입해야 하는 대만과 한국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급조된 결혼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메콩 농촌의 빈곤 가구 출신의 남자들이 국제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은 아직 대만이나 한국의 남성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캄보디아 농촌여성을 배우자로 찾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Nguyen Hong Xoan 2013; 홍 쏘안 교수와의 인터뷰, 2013년 7월 1일), 구체적인 면모는 뚜렷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국내의 다른 지방에서 신부를 찾아야 하는데 대개는 자신의 마을보다 빈곤한 지방에서이다.

마을에 결혼이주가 늘어나면서 아들과 딸의 상대적인 선호와 가치에 대한 평가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아들과 딸의 지위와 역할도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많았다.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 딸에 대한 기대로 인해 남아선호인식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아들은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노는 것에 관심이 더 많다. 딸은 대만이나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딸이 더 좋다.”(Lan, 47세, 이주가구 여성)

“딸을 낳는 것이 훨씬 수지맞는 일이다.”(Trọng, 52세, 비이주 가구 남성)

마을의 부녀회장(Châm, 62세)도 최근에는 주민들이 아들보다 딸을 선호한다고 했다. 딸이 나가서 돈을 더 벌고 가족을 보다 많이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존재나 가치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딸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딸이 결혼하여 외국에 나가면 집에서 떨어져 살아야 한다. 딸이 돈을 벌어서 보내지만 아들은 여전히 세대를 잇고 또한 집에 남아서 부모를 돌보기 위해 필요하다.”(Trọng, 52세).

그러나 편록마을에서 특히 이주가구의 경우 아들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대답은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딸에 대한 갈망이 나타나는 것은 국제결혼의 기회 증가와 연계된 것이 분명하다. 여성의 결혼이주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멀지 않아 아들과 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구성과 인식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¹⁰⁾

10) 북부 하노이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남아선호 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출생아의 남녀성비에 불균형이 발생하였다는 연구가 있지만(Bélanger and Khuat 2009), 결혼이주가 집중된 남부 메콩에서 남아선호 현상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IV. 결론

베트남 남부 메콩의 마을에서 여성의 국제결혼이주는 가족 내 역할의 변화와 젠더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송금이 이주한 딸의 지위와 권력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의 젊은 여성은 국내와 해외 모두 배우자의 선택 기회가 증가되었고 딸을 가진 가족들에게 지방의 결혼 거래에서 협상능력을 강화시켜주었다. 대조적으로 젊은 남성은 특히, 가난하고 실업상태여서 혼인 시장에서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성의 경우 결혼이주 현상 탓에 스스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결혼이주를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제이주가 젠더 균형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국제결혼이주가 기존의 젠더와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는 고향의 가족에 대한 여성의 강한 책임감과 송금을 보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오히려 젠더 불평등과 딸의 종속성을 재생산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베트남 이주여성은 고향 마을에서 생활할 때에 비하여 대만이나 한국에서 보다 부권적인 환경에 놓이게 된다. 대만과 한국에는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의 역할이 베트남보다 낮다고 평가된다. 많은 경우 남편과 남편의 부모는 신부가 아이를 낳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가사노동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도망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외국인 신부의 여권을 압수하기도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거나 어떠한 네트워크도 갖지 못하게 한다(김이선 외 2010; Wang and Bélanger 2008). 송출마을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가 강화되는 변화는 수용국가에서 유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송출마을과 수용국에서 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젠더의 영역의 차이가 고향마을과 가족 내 이주여성의 지위에 대한 논의에서 더욱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고향마을에서 여성에게 의미 있는 지위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제결혼 이주가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족뿐 아니라 마을공동체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혼인적령기의 여성 인구의 감소와 송금으로 인한 이주여성 가족의 수입증가는 커뮤니티 전체의 사회적 패브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끝으로 본연구의 한계와 함께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사례연구는 무엇보다도 메콩 농촌출신 젊은 여성의 결혼이주에 국한된 것으로서, 이 지방에서 국제결혼이주 못지않게 여성들에게 보편화된 도시지역으로의 국내 이주와 같은 여타 유형의 이주에 관해서는 탐구하지 않았다. 메콩 농촌사회의 경제적 변화나 가구구성, 사회관계의 변화에 여타의 이주흐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에 국한된 사례를 다룬 것은 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한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들에 포함된 변화에 관한 많은 내용들은 실제 지난 20여 년간 베트남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발된 지방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그 점을 변수로서 통제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현지 조사 시점에 국한하여 수행된 것이어서, 국제결혼 추세의 흐름에서 개인 혹은 개별 가구가 경험한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이주의 영향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한 편견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교적 가난한 계층의 젊은 여성의 결혼이주가 집중된 농촌 마을에 초점을 둔 것이다. 결혼이주가 흔하지 않은 마을이나 도시지역 및 여타 계층의 이주자 가족의 사례와의 포괄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는 일부 비이주 가구의 상황에 대하여 다루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주 가구의 경험과 인식에 관한 자료에 의존하였다. 비이주

가구는 이주가구만큼 변화에 대해 많이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결혼적령기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부족과 같은 영향의 측면은 전체 마을에서 느껴지는 면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주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의 목소리는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현상이 마을의 생활과 가족 및 젠더관계, 혼인시장과 혼인 거래에 대해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주여성의 출신 마을에서의 미시적인 사례연구의 결과를 수용국에서 문화적 갈등에 관한 이해나 이주민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결혼이주, 베트남, 젠더, 이주여성, 이주의 영향

〈참고문헌〉

- 김기홍 외. 2011.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민정 · 유명기 · 이해경 · 정기선. 2006.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딜레마와 선택: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제39권 1호: 159-193.
- 김이선 · 최호림 · 마경희 · 선보영 · 이소영.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가족부.
- 김현미. 2013. “다문화사회로 이동하는 한국: 이슈와 쟁점” 한아세안 센터 다문화 Workshop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아세안의 기여” 발표문. 2013년 5월 16일.
- 김현미 · 김기돈 · 김민정 · 김정선 · 김철효. 2007.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

- 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3년 2월호]
- 설동훈 외, 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 여성가족부.
- 윤형숙. 2003.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사회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공동 심포지움 발표문, 2003년 9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최호림. 2010.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과 지역 거버넌스”, 『동남아시아연구』20(2): 135-178.
- 최호림. 2013. “베트남의 결혼이주와 귀국 이주여성” 2013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열린강연 시리즈 제5회 “아시아, 이주의 중심을 가다: 베트남 편”, 2013년 6월 4일.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 崔昊林. 2010. "韓國へのベトナム人移住労働：政策，社會資本，仲介業および連鎖移住“，일본 교토대 동남아연구소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8(3): 242-264.
- Asis, Maruja M. B. 2001. “The Return Migration of Filipino Women Migrants: Home, But Not for Good,” in Wille C and Passi B. eds. *Female Labour Migration in South-East Asia*. Bangkok: Asian Research Centre for Migration, pp.23-93.
- _____. 2003. “International Migration and Families in Asia,” in Iredale R., C. Hawksley, and S. Castles. eds. *Migration in the Asia Pacific: Population, Settlement and Citizenship Issues*. Cheltenham: Edward Elgar. pp.99-117.
- Bélanger, Danièle and Khuat Thu Hong. 2009. “Second Trimester

- Abortions and Sex-Selection of Children in Hanoi, Vietnam,” *Population Studies* 63(2): 1-9.
- Bélanger, Danièle, Khuat Thu Hong, and Lee Hye-Kyung. 2011. “Sweat Dreams, Sour Endings: Stories of Vietnamese Immigrant Spouses Returning Home,” paper presented for the Workshop on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o East Asia: Toward a Multi-dimensional View” July 1st 2011, Hanoi, Vietnam (org. b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ISDS) pp.84-91.
- Bélanger, Danièle, Khuat Thu Hong, and Tran Giang Linh. 2011. “Threatening Nationalism, Patriarch and Masculinity: Constructions of Transnational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East Asian Men in Vietnamese Mass Media,” paper presented for the Workshop on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ese Women to East Asia: Toward a Multi-dimensional View” July 1st 2011, Hanoi, Vietnam (org. by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Studies, ISDS) pp.14-30.
- Bélanger, Danièle and Tran Giang Linh. 2011 “The Impact of Transnational Migration on Gender and Marriage in Sending Communities of Vietnam,” *Current Sociology* 59(1): 59-77.
- Charsley, K. 2005. “Unhappy Husbands: Masculinity and Migration in Transnational Pakistani Marriages,” *Journal of 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11: 85-105.
- Constable, Nicole. 2005. *Cross-Border Marriages: Gender and Mobility in Trans-national As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De Haas, H. 2007. "The Impact of International Migration on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Moroccan Sending Regions: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Working Papers No. 3. International Migration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 Farrer, J. 2008. "From Passports to Joint Ventures: Intermarriages between Chinese Nationals and Western Expatriates Residing in Shanghai," *Asian Studies Review* 32(1): 7-29.
- Hadi, A. 2001.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he Change of Women's Position among the Left-behind in Rural Bangladesh,"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Geography* 7(1): 53-61.
- Hondagneu-Sotelo P. 2000. "Feminism and Migration," *The Annals of American Academy* 571: 107-120.
- Hugo, Graeme. 2005. "The New International Migration in Asia," *Asian Population Studies* 1(1): 93-120.
- Hugo, Graeme and Nguyen T. Hong Xoan. 2008 "Marriage migration between Vietnam and Taiwan- A view from Vietnam". In I. Attane and C.Z. Guilmoto ed. *Watering the Neighbour's Garden: the Growing Demographic femal Deficit in Asia*. CICRED, Paris. pp. 365-392.
- Jones, Gavin W. and Hsiu-hua Shen. 2007. "International Marriage in East and Southeast Asia: Trends and Research Emphasies". *Citizenship Studies* 12(1): 9-25.
- Lee, Hye-Kyung. 2008.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State in South Korea: Focusing the Governmental Policy," *Citizenship Studies* 12(1): 107-123.
- Lucas, R. E. B. 2005. "Consequenc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the Countries of Origin,"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rom Low-Income Countries. Cheltenham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pp. 85-274.

Nakamatsu, T. 2005. "Complex Power and Diverse Responses: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and Womesh's Agency," In L. Parker. ed. *The Agency of Women in Asia*. Singapore: Marshall Cavendish Academic, pp. 158-181.

Nguyen Hong Xoan. 2010. "Contemporary Cross-Border Marriage Migration in Vietnam: Pattern and Consequence: Case study of Taiwan-Vietnam and Korean-Vietnam Marriage", 2012년 한국인구학회 국제심포지엄 [혼인이주 현상에 대한 인구학적 조망: 아시아의 맥락에서] 발표문, 2012년 9월 8일, 부산.

_____. 2013. "The life experiences of Vietnamese Brides in Korea- An Analyzation from Cultural Perspectives" paper presented at the ASEAN-Korea Center's Workshop on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ASEAN's Contribution." 16 May, Seoul, Korea.

Piper, Nicola. 2009. "The Complex Interconnections of Migration-Development Nexus: A Social perspective," *Population, Place and Space* 19: 93-101.

Piper, Nicola and Mina Roces, eds., 2003. *Wife or Worker?: Asian Women and Migratio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

Rahman, M. M. 2009. "Temporary Migration and Changing Family Dynamics: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Population, Place and Space* 15(2): 161-174.

Thai, Hung Cam. 2008. *For Better of for Worse: Vietnamese International marriages in the New Global Econom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Tran Giang Linh. 2008. "The Impact of Women's Emigration on Sending Areas of Vietnam." MA thesis,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Wang, Yi-Han. 2007. "Hidden Spaces of Resistance of the Subordinated: Case Studies from Vietnamese Female Migrant partners in taiwa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1(3): 706-727.

Wang, H. and Danièle Bélanger. 2008. "Taiwanizing Female Immigrant Spouses and materializing Differential Citizenship," *Citizenship Studies* 12(1): 91-106.

<http://goldsea.com/808/11marry.html>, (검색일: 2013. 4. 10)

<http://articles.latimes.com/2008/aug/24/news/adfg-brides24> (검색일: 2014. 4. 10)

(2015.01.09투고, 2015.02.25심사, 2015.02.26게재확정)

<국문초록>

결혼이주가 이주자 출신 마을에 미친
영향과 젠더 관계의 변화:
베트남 메콩델타 농촌의 사례

최 호 림

((사)글로벌발전연구원 ReDI)

이 논문은 결혼이주가 출신 지역 마을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베트남 남부 메콩의 마을에서 여성의 국제결혼 이주는 가족 내 역할의 변화와 젠더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송금이 이주한 딸의 지위와 권력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마을의 젊은 여성은 국내와 해외 모두 배우자의 선택 기회가 증가되었고 딸을 가진 가족들에게 지방의 결혼 거래에서 협상능력을 강화시켜 주었다. 대조적으로 젊은 남성은 특히, 가난하고 실업상태여서 혼인 시장에서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성의 경우 결혼이주 현상 탓에 스스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결혼이주를 부정적인 것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제이주가 젠더 균형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등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즉, 국제결혼이주가 기존의 젠더와 권력관계를 재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주제어: 결혼이주, 베트남, 젠더, 이주여성, 이주의 영향

<Abstract>

The Social Influences of Transnational Marriage
Migration on the Sending Community:
Case Study of a Mekong Village in Vietnam

CHOI Ho Rim
(Re-shaping Development Institute)

The rapid increase in cross-border marriages between Vietnamese women and men from Taiwan and Korea is creating a new international migration wave of marriage migrants in the region. This study explores how marriage migration impacts on power relations, in particular, gender relations in a village of Mekong delta in Vietnam. Interpretations of field research data collected mainly in August-September 2012 and June 2013, indicate changes in the status of daughters and sons and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of the marriage market. Emigrant daughters could enhance their status and power, mostly through sending remittances. With the enlargement of emigrant daughters' role of decision making for various domestic affairs, not a few villagers expressed an increased preference for having girls rather than boys. Young village women and their families can have more bargaining power in marriage market than before. On the contrary, single men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in getting married in the village due to the perceived greater value of foreign

men, higher bride-prices and a shortage of potential brides. Consequently, marriage migration has contributed to significant social transformations with respect to gender and power relations.

Key words: marriage migration, Vietnam, transnational migrant, social relation, gender

